

나의 진리 실험

이남곡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려 하니 많이 망설여집니다.

특히 제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는 일관되게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 왔다고는 하나, 그것을 감히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제가 살아온 과정을 떠올려 볼 때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이 시대와 사회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는 우주가 시작한 이래의 역사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인격의 부족함이나 비겁함 때문에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굴절되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관적으로는 '진리 추구'를 일관된 목표로 살아 왔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저와 비슷한 길을 걷는 분들께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사상이나 실천이 변해 온 과정을 차근 차근 살펴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전환점은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누구하고의 만남이라던가, 어떤 사건이라던가, 새로운 삶의 시작과 같은 시점은 있지만 그 전후가 쭉 이어져 있어서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다 보니 사실 제 사상이라는 것도 전부가 다 그 조합(組合)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대강의 변화과정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서도 필요하고 다른 분들께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물론 평생을 통해 변하고 각각의 나이 대가 다 중요하겠지만 저에게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대학시절

지금까지의 제 사상과 실천이 나아온 것을 보면 그 시절 입력(?)된 생각이 가장 큰 방향타(方向舵)역할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1963년)는 인구의 대다수가 농민인 후진국이었고, 이제 갓 피어나려는 민주주의가 쿠데타에 의해 꺾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세에 의한 해방과 타율적 분단, 식민지 잔재의 불청산에서 오는 부정의와 그 바탕에서 오는 부패, 부익부 빈익빈의 천민자본주의, 절대 빈곤,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황폐화된 진보의 전망,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민족적 모멸감 등이 저에게 보여 온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온 세계에서 저의 길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끌림으로 된 것은 민족주의와 마르크스 그리고 불교였습니다.

그 당시 생각이야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 경향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정서적으로 가장 강렬했던 끌림은 부강하고 존경받는 민족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 같고, 그 길은 자유와 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이 점에서는 마르

크스가 현실적으로 다가 왔었던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것이 제 業이나 뭐 그런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기에는 저 자신의 속마음이 너무나 불교에 끌리는 바가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용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도 이 세 가지를 통합하고 싶어 한 욕구가 저의 그 후의 삶을 방향지워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때 그런 자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길 즉 사회현상의 변혁의 길과 마음의 세계의 변혁이 궁극적으로 하나로 되는 그런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길이 서로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턱 없이 모자란 저 같은 사람이 이 길을 가기에는 험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40년에 걸친 고뇌와 실천 들은 바로 이 두 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제 나름의 삶을 통해서 진리 그 자체도 또한 진리에 이르는 길도 '중도(中道)'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해 가는 과정도, 한 사람의 관념계의 변화도 바로 이 중도를 발견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곧바로 중도에 이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극단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변증법적 진화의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극단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중도'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이 다소 두서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변혁의 길

대학 시절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은 사회와 국가의 근본적 변혁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후 약 15년 동안은 이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당시는 냉전적 사고가 지배하고 레드 콤플렉스가 강하던 군사 정권 시절이라 활동이 지하 비밀 활동이었는데 당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선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성격 안에 근본주의적 요소가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시에 이런 근본주의적 요소가 제 사상을 근원에서 다시 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 농촌 지역의 교사로 시작(변혁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 지역 선택)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궁극적인 관심은 총체적 사회 변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계급적 관점과 투쟁 등에 대해 제 내면으로부터 점점 커지는 '이게 아닌데' 하는 내면의 소리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계급적 관점과 투쟁의 논리'와 '증오와 투쟁을 넘어서 인간상에 대한 욕구'가 자신 안에서 조화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나름대로 타협한 것이 우선 현상계에서 힘을 획득(변혁에 성공)한 다음 지금까지 많은 변혁운동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일은 그 다음에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더 급진적이 되고(사실은 불안정하다고 보아야겠지요), 마침내 그 일 때문에 4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된 사건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신 말기의 엄혹한 사정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로서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일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갈등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져 갔고, 자신의 어정쩡한 타협책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이고 미망인지를, 따라서 결국 어느 쪽도 진실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 결별하게 되었지만 그 후 결국 그 일 때문에 4년의 징역 살이를 해야 했고 이것은 저에게 다른 의미에서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음의 몇 가지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첫째는 사회주의권의 실태를 보면서 '사람과 물질이 준비 안 된 혁명의 실패'를 보았고, 그것이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 제 자신의 이야기라는 뼈아픈 자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계급적 증오와 권력투쟁으로 일시적으로 정권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새로운 세상은 동기가 새로운 사람들이 출현하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지배 구조의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 그런 권력에의 욕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하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사유재산을 철폐한다 할 지라도 이윤동기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의 동기가 생산력을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는 사회제도로써 뿌리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 보여 왔습니다.

둘째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보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생산력이나 사회제도에 조응하는 면도 있지만 그 반대도 역시 성립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진보시키기 위해 그 사회적 존재를 변혁해야 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에 조응하는 사회 시스템 만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 또한 진실입니다.

지금 세계자본주의가 보편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몇몇 나라나 자본가들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과 욕구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인류의 보편적 욕구는 개인을 억압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제약들 즉 봉건적, 신권적, 가부장적, 전체주의적 제약들 또 이런 제도, 규범, 인습들로부터 개개인을 해방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달려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어렵게 하겠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가장 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것을 경과하고 이것을 넘어서지 않는 한 집단주의는 생명력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만 그 길은 계급투쟁이나 독재의 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자본주의로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신념에는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상, 인간상 그리고 그 이행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교편을 잡으면서 대학 시절에 보지 못했던 고전을 많이 접하면서 자신 안에 있던 다른 요소들이 큰 자양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때는 이것을 종교적 성향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런 고전이나 성인들과의 만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숭고본능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역을 살면서 만났던 데이아르 싸르텡 신부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주 안에서 인간의 지위나 역할, 궁극적 진화에 대한 신념 등은 협애한 계급적 관점이나 민족적 관점을 벗어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의 정신계의 탁월한 스승들의 가르침,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숭고본능들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원리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의 길이라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새로운 문명 탐구

징역을 살고 나와서 가게를 꾸리는 일에 매달리면서도 이런 저의 내면적 욕구는 삶을 결코 편안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시기 법륜 스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이 때의 생각은 불교사회연구소 회지 '誓願과 連帶' 창간호에 실려 있습니다)

특히 이 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이라는 테마로 진행했던 세미나들은 우리들의 사상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사회진보의 길이라고 믿어져 왔던 신념들이 무너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길을 발견하려는 마음들이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문명이라고 할 때도 서로 무척이나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지금까지의 문명을 부정하는 기초 위에 서기도 합니다.

특히 생태적 세계관이 넓혀지면서 지금까지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나 물질적 생산력을 반대하는 견해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당시 저로서는 이것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로 이어져 있는 우주(장 회익 교수는 우주 만이 하나의 생명단위라고 하시지만) 안에서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사람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문명의 폐해가 큰 것에 눈이 돌려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상적인가를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문명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적 진화에서 인간 정신의 출현은 대 사변입니다.

이 인간 정신의 핵심인 인간의 지능의 사용 방향을 변혁하는 일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진보의 최선단(最先端)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인간의 지능은 주로 외부와의 관계에서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 특히 인간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데는 그다지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장회익 교수님은 이것을 '행위능력과 가치이념체계의 모순'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일반의 자기중심성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서로 순환합니다. 생태계의 자연적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인간도 동물로부터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행위능력에 의해서 동물 일반의 자기중심성을 그대로 간직하고서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생태계마저 존립의 위기에 빠뜨립니다.

예컨대 불을 발견하고 이용한 인간은 마침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원자력을 에너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능력을 발전시켰지만 자기중심적 본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행위능력은 자연적 균형을 파괴할 정도로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억제하여 자연적 균형으로 돌아가게하는 것은 아무런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지능의 사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혁할 때입니다.

이것만이 현실적이며 인간도 자연도(사실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다시 말 해 인간의 자기중심적 가치체계를 변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변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는 종말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대체로 이상과 같이 이해하고 저도 동감입니다만, 저로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위기에 처하여 자신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성인들이 가르쳐 왔고 지금까지는 주로 종교에서 이야기해온 '자기를 넘어선 성인의 길'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길로 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각을 확대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사회현상과 유리되던(공자나 석가 예수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 지금도 종교적 추구와 구체적인 사회적 삶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사회 조직과 운영의 현실적 원리로 되는 그런 시대를 내다 보면서, 자신이 진짜 혁명가,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자신을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 생활이 풍부해 지는 것은 이러한 진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조건입니다.

생산력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산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물질이 풍부해 지면 서로 침범하려고 다룰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족한 물자를 놓고 서로 양보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금의 인간의식의 상태에서 보면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물질 문명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보편적 진보의 길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인간이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들이 성숙했습니다.

인류의 총수요를 넘어서는 생산력, 민주주의의 보편적 확산,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급속한 자유도(自由度)의 신장 등은 새로운 문명을 위해 대단히 유리한 조건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로는 진정한 자유나 행복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성공 여부는 지금의 여러 요소들을 새로운 문명 건설을 위해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연을 침범할 필요가 없어지고, 침범하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되어 못 견디는 사회로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백화난만(百花爛漫)한 화원처럼 꽃피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레 감소할 것이며, 정신적 예술적 욕구가 커질 것입니다.

야마기시와의 만남

불교 사회연구소에서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함께 하면서 '이념과 구체적 삶의 괴리'를 넘어서야 하겠다는 욕구가 강렬해졌습니다.

이 때 마침 야마기시즘 특별강습연찬회(줄여서 특강)를 알게 돼서 7박 8일 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야마기시와의 만남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강 내내 그 동안 고민해 오던 여러 가지가 명쾌하게 풀리는 듯 했으며, 세월을 뛰어 넘어 (야마기시는 1961년에 사망)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감격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때 생각했던 것을 간추려보면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의식이 진화해야 할 (야마기시에서는 관념의 정상화라고 부르지만)목표가, 즉 의식혁명의 목표가 선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아집(無我執) 무소유(無所有) 일체(一體)의 이념으로 집약되는데, 이것을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개인의 실례를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특별 강습연찬회를 보편화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을 보편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둘째로 의사소통과 진리규명 방식으로 연찬(研鑽)방식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연찬방식은 서로 상대를 향해 마주보는 토론이나 다수결에 의한 결정 방식이 아니라 단정(斷定)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함께 규명해 가는 방식인데 '누가 옳은가'를 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서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함께 물어가고 끝까지 규명해가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이것을 보편화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연찬방식이 결합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무아집, 무소유, 일체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사회화한 실현지(實顯地)의 존재가 저에게는 미래 사회에 나타날 자본주의와 종교를 넘어서 '무소유 공용의 일체사회'가 꿈이 아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으로 다가 왔습니다.

특히 그 실현지의 멤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게 그 당시 이런 생각을 더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아집, 무소유, 일체의 이념이 단순히 관념계를 진보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조직과 운영원리로 되는 하나의 모델을 발견한 것이지요.

특강을 하고 나서 약 2년 동안 이런 생각들을 발전시켜 갔고 마침내는 자신이 그런 삶을 하기로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의논을 해야 했고, 평소 저와 생각을 같이 하던 아내와는 합의했지만 아이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은 좋아서 한다지만 아이들에게는 가혹한 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작은 공동체의 삶 속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저희 부부가 가장 힘들었던 것도 아이들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좁은 공동체 안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그 가능성을 무한히 키워나갈 전망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정말로 신념이 있다면 자식에게 당당하게 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실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도 그런 판단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이야기지만 야마기시 실현지에서 나와 살고 있는 지금도 아이들이 그 생활을 후회하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지나치게 급진적인 사회 특히 교육에 대한 실험을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미안함은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특히 큰 아이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부천 고등학교에 합격한 아이를 시골 농고에 전학을 시키고 철저한 실학(주로 농업)위주의 야마기시 학원 고등부에 입학시켰는데, 주로 방학 때는 일본에 있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기 중에는 농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것이 상당히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원체 착한 아이라 부모에게 불평 한마디 안했지만 '얼마나 힘 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짝합니다.

다음으로 결정을 어렵게 한 것은 제 안에 있던 민족 감정이었는데, 이성적으로는 넘어서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구체적 현실로 되자 제 마음의 상태가 보여 왔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는 계기를 삼자고 생각해서 참획(參劃)을 결정했습니다.

야마기시가 일본 문화에서 탄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세계화 보편화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을 넘어서야 하고 그 이름도 처음에는 자연인의 이름이 더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진리 실천회 같은 것보다는 훨씬 겸허하지 않을까 생각) 앞으로는 적절한 이름으로 바뀌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8년 동안 실현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을을 그리며

저에게 있어서 8년의 실현지 생활은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은 생활이었습니다.

연찬생활이라고 했지만 그 실태를 돌이켜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를 잘 받아들여 준 실현지 식구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다만 저로서는 일반 보편성의 추구라는 내면의 욕구가 강해서 실현지 중심의 운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여러모로 검토한 끝에 결국 실현지를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실현지를 나오려고 결심하게 된 배경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일반적 의식의 실태에 비해 사회의 짜임새가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따른 부작용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집이나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짜임이 무소유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소유욕이나 아집이 감소하는 쪽 보다는 오히려 허위의식이 나타나기 쉽게 되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서 부자유가 나타나기 쉬운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작은 소공동체를 하다보면 나타나기 쉬운 폐단입니다.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폐쇄성을 띄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선진적이라는 우월감에 빠지기 쉬워서 외부와의 교류나 받아들임에 소극적으로

되기 쉽지요. 더구나 한국에는 실현지가 하나 밖에 없어서 그 폐쇄성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교류는 주로 일본 실현지와 하기 때문에 야마기시 밖의 세상과는 그다지 교류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됨)

셋째는 앞에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아이들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새로운 사회에서 펴게 하겠다던 처음의 생각을 접어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60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마기시의 경험을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마기시가 그리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거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적인 실현지 중심의 운동보다는 보다 넓게 일반 보편적인 바탕에서 운동을 한다면 야마기시는 20세기가 낳은 훌륭한 사상의 하나로 21세기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단 야마기시를 떠난 사람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인류의 고귀한 유산은 그대로 살려 가고 싶습니다.

야마기시 선생이 저술한 지적혁명사안(知的革命私案) 가운데 <인정사회조직으로 개조>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쓰고 있는 '인정사회로 나가는 세가지 방법' 같은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진정한 진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행복회 홈페이지 allhappy.or.kr에서 연찬지(행복회 회지)에 쓴 <진보의 길>이라는 저의 칼럼 참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나름대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물론 야마기시 선생의 생각을 왜곡할 수도 있겠지만 그 허물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타를 침범하지 않도록 그 한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을 것'

이것은 그 동안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 온 대부분의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보의 표지(標識)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 시스템과 규범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인류는 많은 진보를 이루어 왔고(야마기시 선생이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 많은 부분이 투쟁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투쟁이 분노나 증오가 바탕이 될 때 결국 타를 침범하게 되고 마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인류가 자각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시대의 과제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싸움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미움이나 화에 휘둘리지 않고 싸우는 길'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보의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침범할 필요가 없도록 물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까지 진보가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산력은 그런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태계 파괴나 자원고갈, 물신 숭배 같은 문제 때문에 물질적 생산력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을 일반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높은 생산력은 진보의 또 다른 표지(標識)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소박한 삶은 저생산에 의해 강요된 '가난한 삶'이 아니라 욕구의 질이 변화해서 오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셋째로 '타를 침범하는 것의 천박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을 것'

특히 야마기시는 다른 두 안은 빠지더라도 이것 만은 빠트릴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식혁명인데, 저는 21세기의 진보의 가장 중요한 표지(標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야마기시는 <폭을 넓히는 부끄러움을 깨닫고, 남에게 양보하고 싶게 되는, 독점에 견딜수 없는 인간으로 서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야마기시 생전 보다 훨씬 그 바탕이 좋아진(첫째와 둘째 면에서) 지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특히 의식혁명(세번째)을 주축으로 첫째의 사회변혁과 둘째의 물질 혁명을 함께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닐까 믿습니다.

저는 이런 바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끝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잡지 인드라망 연재 <남곡이 그리는 마을 이야기> 참조)

이상으로 저 자신의 사상의 편력이랄까 나름대로의 진리 실험에 대해 말씀드렸읍니다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바와는 다른 길들을 밟아 온 것 같은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일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수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나 하는 것과, 중도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서 다행히 중도에 가까워졌으면 하고 위안을 삼아봅니다.

저는 또한 무수한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온 이 땅, 특히 근대 이후 세계사적 모순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이 땅에서 인류 있는 한 영속할 새로운 문명, 진정한 중도의 문명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